

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민수입니다. 민수와 저는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. 우리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된 이후에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.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. 또 3 년 전에는 민수와 함께 여행한 적도 있습니다. 민수는 성격이 좋아서 저의 실수도 잘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.